

KSADP

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발달지원연구

제11권 제2호 (2022년 8월)

KJADP

한국발달지원학회

www.kci.go.kr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1권 제2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2년 8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www.kci.go.kr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1권 제2호 / 2022. 8.

-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오세옥 · 하정희 / 1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유연성으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최윤정 · 이창현 / 29
-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구미영 · 송원영 / 55
-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요구조사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지원방안
.....한지현 · 최재광 · 이유경 · 송원영 / 75
- 유아용 6요인 기질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이인영 · 윤진영 · 최해훈 · 김수아 · 최은실 / 95
-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이미진 · 김도연 / 117

한국 발달 지원 학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www.kci.go.kr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오 세 옥

자작나무숲 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

하 정 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의 경험과 그 경험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본인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와 모의 양육태도 점수차이가 크고 진로결정의 경험이 있는 20대 성인남녀 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연구문제에 따라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 불일치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과 같이 2개의 영역에 걸쳐 4개의 범주, 11개의 하위범주, 47개의 핵심개념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경험을 하였는데, 부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도 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반된 지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더라도 자녀의 진로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 같거나 부모 중 한쪽이라도 자녀를 지지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 양육태도, 양육태도 불일치, 진로결정, 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CQR)

[†] 교신저자: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3, E-mail: hajung366@hanyang.ac.kr

진로란 나 자신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며, 개인의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바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손은령, 이순희, 2011). 스스로 선택한 진로나 직업은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고(Crites, 1981), 진로 선택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변화할 수도 있다(김향란, 유승래, 손은령, 2017). 진로는 개인의 생활양식, 가치관 등 일생에 영향을 미치며(연문희, 강진령, 2002; Tolbert, 1980), 일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박미경, 김은하, 2016). 스스로가 원하는 진로를 발견했다면 그의 삶은 만족스러울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서 인생이 우울해지기도 한다(Strauser, Lustig, & Ciftç, 2008; Warr, 2007). 즉,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문화의 특성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거나 진로의 방향을 정할 때 부모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영혜, 2013). 한 개인의 일생에서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형성하게 되며,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가치관을 만들어 가고, 부모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연, 하정희, 전수현, 2007).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데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대를 아울러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에 발맞추어 양육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TV 프로

그램도 끊임없이 방영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제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김진아, 한귀례, 2014). 실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부모 양육태도’를 주제로 검색하면 학술지논문 2,300편, 학위논문 5,300편 이상의 논문이 검색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부모 양육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는 아이가 맺는 첫 번째 인간관계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받고, 부모에게 배운다. 부모의 가치관, 생활 습관, 의사소통 방식, 감정표현 양식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지만, 그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였는지는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과 성격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Becker, 1964; Rohner, 1991; Schaefer, 1959). 양육태도란 자녀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 및 발달, 자기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이면서도 주요한 환경적 요소이며, 이는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신 내적 구조를 갖도록 돕는다(박은미, 1999; 백승진, 2008).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양식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고, 자녀의 정서, 인지발달, 행동,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덕주, 권혁철, 2013).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Symonds(1949), Schaefer(1959), Parker(1979), Baumrind(1991), Rohner(1991)가 있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 복종-지배로 분류하였고, Schaefer(1959)는 애정-거부, 자

을-통제로 나누었으며, Parker(1979)는 돌봄 대 과보호로, Baumrind(1991)는 애정 대 통제로, Rohner(1991)는 수용 대 거부 차원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개념화하였다(김은정, 2016).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분류하면 수용, 애정, 돌봄, 자율, 민주적, 정서적 따뜻함 등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거부, 과보호, 통제, 지배, 침입, 무관심 등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제시되고 있다(김은정, 2016).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발달정도가 높고(이원영, 1983),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이창숙, 2007), 청년기 자녀의 대인불안은 감소하며(배성희, 1995), 자녀의 강인성과 주관적 행복감은 높아지고 우울수준은 낮아지는(정은선, 조한익, 2009) 등 자녀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반대로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증가시키고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은 감소시키며(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나약함과 의존성이 커지고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을 야기하는(이소미, 2002; Hudson & Rapee, 2001; Mills & Rubin, 1998; Rapee, 1997)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한다(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 간에 양육태도의 차이이다(서경현, 유제민, 최신혜, 2007).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수없이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부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서경현, 2012) 부모들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의

견 조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는 논쟁을 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게 된다(노지형, 송현주, 2012). 양육태도가 불일치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면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해롭게 작용할 수 있고(Katz, 1988), 자녀들은 자책감을 느껴 불안정해지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거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다(Shaw, Von dra, Hommerding, Keenan, & Dunn, 1994; Shaw, Winslow, Owens, & Hood, 1998; Weiss, Dodge, Bates, & Pettit, 1992).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능력뿐 아니라 성격이나 정서 등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더 나아가 성년기까지 지속된다(최정혜, 2015). 또한, 청소년기에 나타났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 자녀가 결혼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Aquilino, 1997).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순, 2020).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며(윤성민, 2014), 박경환(2011)은 성인기 이전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자녀의 핵심자기평가 성격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고(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높아지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거나 통제적 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숙, 조한익, 2004). 대학생들이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연구들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과 진로결정 및 확신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며,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초기성인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고 그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요인이 되며 자기가 긍정적이라고 느끼고(곽윤영, 2008), 진로태도 성숙과 자아존중감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남수현, 2009) 등 유익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반면,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며 착취적이기도 하고(김은영, 1996),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창의성이 부족하며 의존적이고 회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혜진, 2002),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등(정윤성, 2003)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였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최은희, 2002).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태도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이승희, 곽수란, 장은옥, 2010)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Tschann, Flores, Pasch, & Marin, 1999),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책감을 느끼며(Shaw et al., 1998) 자신감을 결여시

킨다고 하였다(이정숙, 2016). 이와 같은 자신감 결여는 도덕성,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찬숙, 현은자, 2008), 정서 및 행동적 문제를 불러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이승희 등, 2010). 자녀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같지 않고, 자신에 대해 한계를 느끼며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매우 괴로워한다(최진, 권호장, 2016).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한 경우 자녀들의 스트레스, 자신감 결여, 정서 및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부모의 불일치된 양육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 및 부적응의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양육태도가 불일치한 부모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부모의 불일치한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신선한 정보, 경험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을 적용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수집된 자료들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합의를 통해 분석하며,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연구 방법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결정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변인에 대한 통계를 얻는

연구에 더하여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임은미, 2011).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적절하며, 소수의 사례로도 참여자의 경험을 자세하고 풍성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양적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으로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모든 부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줄기 때문에(허정철, 2010)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는 부부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를 지켜보며 성장한 자녀의 정서발달 및 심리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일으킨다(Emery, 1982).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부모로 인해 자녀는 그들의 진로결정에도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를 경험한 자녀들을 심층 면담하여 그들이 성장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그 중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소년 내담자의 부모 상담 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가 되고, 부모와 진로 문제로 갈등하는 청소년과 초기성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은 어떠한가?’, ‘부모의 불일치한 양

육태도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2가지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구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고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확실하며 여건이 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다(한유리, 2020). 본 연구의 주제는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연구이므로 진로를 결정했거나 진로결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20대 성인 남녀를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하였다.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을 모집해야 하므로 본인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하여 불일치 점수가 높은 사람 중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를 개발한 Hill(2012)은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은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고 일반적으로 2명에서 15명의 참가자 수를 추천한다고 하였으므로 그에 부합하는 8명을 선정하였다.

측정 도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 등(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

에 의해 개정된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바탕으로 송지영(1992)이 개발한 한국판 PBI(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과거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25문항을 ‘아주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전혀 안 그랬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결합에 작용하는 부모 역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차원을 각각 측정한다(송지영, 1992). ‘돌봄’ 차원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점수는 부모의 태도가 따뜻함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는 돌봄의 부족, 즉, 부모의 태도가 거부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성민, 2014). ‘과보호’ 차원은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점수는 통제하는 부모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생활에 침입하거나 과잉 통제하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낮은 점수는 자율적인 부모의 태도를 나타내며 그러한 태도는 행동과 독립심을 키워준다(유성민, 2014).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돌봄의 평균값을 수평으로, 과보호 평균값을 수직으로 하여 직각 교차시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높은 돌봄-낮은 과보호는 바람직한 결속, 낮은 돌봄-낮은 과보호는 약한 결속(결속의 부재), 높은 돌봄-높은 과보호는 애정적 구속, 낮은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직업/전공	검사지 결과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부-모)
참여자1	여	26	출판편집	약한 결속(결속의 부재)-애정없는 통제
참여자2	남	28	대학원생 상담심리	애정없는 통제-애정적 구속
참여자3	여	23	대학생 중어중문학	애정없는 통제-애정적 구속
참여자4	여	24	대학생 정치외교학	바람직한 결속-애정없는 통제
참여자5	여	23	대학생 간호학	약한 결속(결속의 부재)-애정적 구속
참여자6	여	27	보육교사	애정없는 통제-바람직한 결속
참여자7	남	23	대학생 정책학	애정없는 통제-애정적 구속
참여자8	여	25	프리랜서(아동놀이치료)	약한 결속(결속의 부재)-애정적 구속

은 돌봄 높은 과보호는 애정없는 통제이다(Parker, Tupling, & Brown, 1979).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유의하다고 보고되었고, 타당화 당시의 Cronbach's α 는 어머니 과보호 .87, 아버지 과보호 .88이며 어머니 돌봄 .87, 아버지 돌봄 .90으로 나타났다(송지영, 1992),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과보호 .87, 아버지 과보호 .83, 어머니 돌봄 .90, 아버지 돌봄 .91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2021년 6월 18일부터 2021년 7월 16일 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응답자 중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 점수가 높으며 설문지 답변에 연구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20대 남녀 20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담을 할 수 없거나 참여 의사를 철회한 사람을 제외한 8명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자 면담은 대면, 화상(Zoom), 전화통화 중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 면담을 실시하는 기간에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화상(Zoom)과 전화통화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2021년 8월 15일부터 2021년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 1인이 진행했고,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준수한 연구 윤리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직전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용도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축어록을 작성할 것에 대한 동의 및 연

구 참여자의 익명화와 비밀보장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연구 설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신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면담 내용을 논문에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할 것을 동의받았으며, 참여자가 면담 도중에 힘들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연구 설명서를 통하여 알렸다.

셋째, 면담은 감수자의 감수를 받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연구문제와 관련있는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질문들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은 “본인이 지각한 부모님 각각의 양육태도는 어떠한가요?”, “성장하는 동안의 여러 경험 중 부모님과의 인상적인 경험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양육태도 차이로 인해 힘들었던 결정적 사건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진로 선택이 어떻게 결정되어 왔나요?”, “부모님의 불일치한 양육태도는 진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등이 있다.

넷째,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전에 명시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 또는 녹화된 파일을 전사하여 원자료로 구성하였고 의미가 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최대한 확인하여 그대로 전사하였다. 이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팀은 본 연구자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1인과 CQR연구 경험이 있는 석사과정 졸업생 1인으로 구성하였고 자료 분석 및 해석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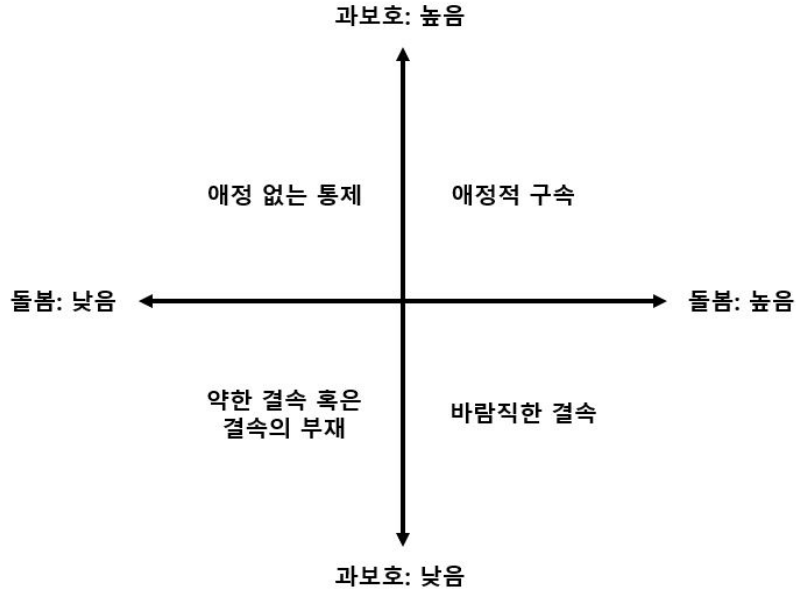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분류

감수팀은 CQR 분석 경험이 풍부한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으로 구성하여 자료 분석 결과 및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피드백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주제 영역을 개발한다. 연구자는 전사한 각각의 자료를 읽으며,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면담자료에서 얻어낸 다양한 생각에 대해 고려하고, 관련 영역 및 유사한 주제들에 대해 분류할 기준을 개발하고 영역으로 만들어 분류한다.

둘째, 핵심개념을 구성한다. 주제 영역을 개발한 후에, 연구 참여자들이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언급했는지를 이해하여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분명하

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약하는데, 이때 참여자가 한 말의 핵심을 발췌한 것을 ‘핵심개념’이라고 한다(Hill, 2012). 연구팀은 개별적으로 핵심개념을 요약한 후 합의를 통해 수정하며 감수자가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정을 제안하고,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한다.

셋째, 핵심개념 구성이 끝나면, 교차분석을 통해 범주를 개발하고 빈도 및 빈도명을 사용한다. 각 사례에서 특징적인 응답을 보이는 참여자들의 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탐색하여 여러 범주로 묶는 작업을 한다. 이때 범주는 도출된 자료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여 중심개념에 가까운지 확인하고 가장 적합하게

분류하며 모든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절차마다 이루어지는 연구팀의 합의 과정들과 감수팀의 감수는 연구자료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연구 결과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범주를 개발한 후, 핵심개념이 나타난 사례 수를 세어 빈도를 확인하는데, 빈도는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Hill 등(2005)이 제안한 네 가지 빈도명(일반적, 전형적, 변동적, 드문)을 사용한다. 한 범주가 모든 참여자 또는 1명의 참여자만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general)’이라고 하고, 절반 이상의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전형적(typical)’, 적어도 2명 이상의 참여자에서 절반에 이르는 참여자들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변동적(variant)’으로 이름 붙인다(Hill, 2012). 표본이 15보다 클 때, 범주가 참가자 2~3명에게서 나온 핵심 개념을 포함할 때 그 범주를 ‘드문(rare)’이라고 한다(Hill, 2012). 단 1명의 참가자에게서 나온 사례는 ‘예외적인 것(rare)’으로 보고 평정자들과 논의를 통하여 다른 범주에 추가하거나 최종 삭제하였으나(윤운영, 2017), 그중 유의미한 자료에 대해서는 ‘변동적’에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7-8개의 사례를 ‘일반적(general)’, 4-6개 사례는 ‘전형적(typical)’, 1-3개의 사례는 ‘변동적(variant)’으로 최종 구성하였다(박영숙, 2018).

결 과

본 연구는 양육태도가 불일치한 부모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와 부모의 불일치하는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를 CQR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첫 번째 영역인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에서는 2개의 범주, 7개의 하위범주와 30개의 핵심개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두 번째 영역인 ‘불일치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에서는 2개의 범주, 4개의 하위범주와 17개의 핵심개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은 불일치하는 부모에 대한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2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불일치하는 부모에 대한 경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경험은 인지적 경험, 정서적 경험, 행동적 경험으로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인지적 경험은 그 경험이 대부분 자녀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정서적 경험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긴 하였으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동적 경험은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받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다르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부분 모두에서 긍정적인 경험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

범주	하위범주	핵심개념	사례 빈도
불일치하는 부모에 대한 경험	인지적 경험	● 부모의 모습을 닮고 싶거나 성격 형성에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일반적(7)
		● 자립심과 독립심을 갖게 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됨	전형적(4)
		●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함	변동적(2)
		● 부정적인 경험을 개인적인 통찰로 승화시킴	변동적(2)
		● 다툼의 원인이 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변동적(2)
	● 한쪽 부모를 비난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됨	변동적(1)	
	정서적 경험	● 부모의 갈등상황에서 다투는 모습으로 인해 두렵고 위기감을 느꼈으며 혼란스러웠음	전형적(6)
		● 자녀에 대한 태도로 상처받았으며 불안하고 무서웠음	전형적(5)
		● 부모가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 두려웠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힘들었음	전형적(4)
		● 정서적인 유대감이 낮은 부모와 특별한 일화로 관계가 가까워짐을 느꼈음	전형적(4)
● 부모에게서 위로와 안정감을 느낌		전형적(4)	
행동적 경험	● 자녀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거나 결정을 해야하는 순간에 도움의 부재로 속상하고 답답했음	변동적(3)	
	● 상대적으로 한쪽 부모와 더 밀착됨	일반적(7)	
	●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피하게 되거나 조심하게 되었음	전형적(4)	

		●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영향을 받았음	전형적(4)
		● 자신이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서도 나타남	변동적(2)
		● 다투실 때 부모 중 약한 쪽의 편에 섬	변동적(2)
		●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부모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둠	변동적(2)
		●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강요함	일반적(7)
		● 엄하고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임	변동적(5)
	통제적이고 간섭함	● 자녀의 행동이나 의견에 반대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화를 냄	전형적(4)
		●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함	변동적(3)
		● 평소에는 존중해주고 수용적이나 학습에 관련해서 간섭함	변동적(2)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방임적이거나 방목함	● 방임하고 다른 부모에게 양육을 일임함	변동적(2)
		● 방목하면서 가끔 통제함	변동적(1)
		●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믿어줌	전형적(6)
	지지적이며 수용적임	●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 수용해줌	전형적(4)
		● 부드럽고 온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전형적(4)
		● 간섭이 심하나 진로관련해서는 선택권을 주고 믿어줌	변동적(1)
	헌신적이나 과함	● 매우 헌신적이지만 그 헌신이 과하다고 느꼈음	변동적(1)

표 3. 불일치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

범주	하위범주	핵심개념	사례 빈도
진로결정 과정의 경험	진로결정의 영향요인	● 부모의 의견을 들긴 했으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함	일반적(7)
		●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능력	일반적(7)
		● 직업의 안정성	전형적(5)
		● 부모 외 가족과 타인	변동적(3)
		● 특정 경험이 큰 영향을 줌	변동적(2)
	● 본인의 의견없이 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변동적(1)	
	진로결정의 걸림돌	● 부모의 반대나 강요가 있었음	전형적(5)
		● 경제적인 부분이 염려됨	변동적(3)
		● 자신의 역량	변동적(2)
	● 없음	변동적(1)	
진로결정 후의 경험	부모의 반응	● 지지를 보내거나 지원해줌	전형적(6)
		●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함	전형적(6)
	● 결정 후 한쪽 부모와 사이가 나빠짐	변동적(1)	
	부모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감정	● 부정적인 반응에 서운함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김	전형적(6)
		● 반대하지 않았지만 편치 않음	변동적(3)
		● 반대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움	변동적(2)
● 지지해 주어 본인에게 집중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생김	변동적(1)		

- 인지적 경험

참여자들은 다투는 부모 사이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개인적인 통찰로 승화시킨 참여자도 있었다.

뭔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단점을 아빠의 장점으로 충족시킬 수 있고 아빠의 단점을 엄마의 장점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고 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영어 스펠링조차도 모르니까 아빠가 저를 잡아두고 막 혼내시고 욕을 하면서 그 영어를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엄마가 보기에는 되게 불쌍했나 봐요. 그냥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은 학원 다니게 했으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애를 잡냐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내가 문제가 된 것 같은 느낌? (참여자 8)

정작 엄마가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애를 진짜로 키우는 건 엄마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책임을 물리고, 잘 키우고 잘 못 키우는 거에 대해서 엄마의 문제로, 엄마 역량 문제로 되돌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어요. (참여자 4)

- 정서적 경험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주로 경험했으나 일부 참여자는 무뚝뚝한 부모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뜻밖의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두 분의 입장이 많이 다르셨어 가지고 많이 다투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아빠랑은 고 3 때. 제가 야간자율 학습을 했었는데 그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되게 자주 데리러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원래 스킨십이 별로 거의 없으신 분인데 저랑 손을 꼭 잡고 집에 가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도 좀 가까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참여자 1)

그때가 한 여덟 살? 아빠가 아프셨는데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좀 많이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바람 잘 날 없죠. 엄마도 힘들고 한테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아빠한테 엄마가 안 싸우기 위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하니깐 그래도 우리 집에 쉴 틈이 있겠다 라는.(울음섞인 목소리) (참여자 8)

- 행동적 경험

참여자들은 주로 한쪽 부모와 밀착되는 경험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다.

아빠도 없고 하니깐 엄마가 이제 막 아

빠 애기도 해주시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도 해주시고 옛날 외할아버지 애기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아빠 욱도 하고 이러면서 엄마랑 그때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참여자 6)

엄마가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생기고 반대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대화 자체를 아예 피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1)

그게 조금은 불편해졌어요. 뒷사람한테 편하게 다가가는 그런 게, 형, 누나들일 때는 아무 상관 없는데, 이게 아버지의 영향인지 몰라도 나이드신 남자분은 더 그렇고요. 연배차이가 좀 있으면 더 많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자가 훨씬 어려워요. (참여자 2)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통제적이고 간섭함, 방임적이거나 방목함, 지지적이며 수용적임, 현신적이나 과함으로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통제적이고 간섭함의 범주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하였다는 것을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이 보고하였고, 이와는 반대되는 태도인 지지적이며 수용적임의 범주에서는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 수용해주며, 부드럽고 온정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보고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불일치하는 부

모 각각에게서 상반되는 양육태도를 지각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통제적이고 간섭함

통제적이고 간섭하는 부모에게서 참여자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생각에서 조금 아, 이걸 좀 아니다 싶는데 이러면은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처음부터 기를 죽이는? (참여자 3)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공부도 안 하는 데 산에나 가자 하고 산에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되게 힘드니까 등산에 가기가 싫다고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보통 아이가 울면 요즘 부모들은 왜 우는지 물어보고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가기가 싫다는 저희 남매를 때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반복적이었어요. 매번 주말마다. 그래서 종아리를 맞아서 중학교 때까지 치마 입기가 좀 부끄러웠던 적도 있고. (참여자 5)

- 방임적이거나 방목함

부모가 방임하거나 방목한다고 느낀 참여자들은 그 부모와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정서적인 교류도 없었다.

아버지는 약간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또 젊으실 때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셔서지고 제가 어릴 적에 기초적인 양육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신 다음에도 크게 교육적인 측면이나 양육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의 뜻에 그냥 따르시는 편이었고 그냥 강하게 말하면 방임 정도로 양육을 하셨고 (참여자 7)

(참여자 8)

3형제를 양육함에 있어 언제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따뜻한 태도이셨습니다. (참여자 7)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약간 평소엔 방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많이 벌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벌 때는, 어차피 아버지는 자식들의 양육에 많이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관여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통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약간 과한 통제라고 할까요? 제가 느끼기엔 (참여자 2)

- 지지적이며 수용적임

참여자들은 지지적이며 수용적인 부모에게 많이 의지하고 그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버지는 좀 한결같았는데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를 벌 하고 시험 점수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까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항상 좀 서포트? 항상 아유 우주 쭉 뭔가 이런 스타일이고.. 아버지가 저를 천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천사, 천사 그냥 이런 역할. (참여자 4)

엄마는 해바라기 같다.라고 했잖아요 의지도 굳으시고 해서 목표 지향적인 거, 해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를 바라보면 쪽 바라보고 갈 수 있게 지지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신념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 헌신적이나 과함

(참여자 5)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나치다고 느꼈으며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되게 좀 헌신적으로 잘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거 리도 굳이 본인이 시간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굳이 차를 꺼내서 그렇게 약간 좀 이런 말해도 되나? 사서 고생하시는? (참여자 5)

불일치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

불일치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은 진로결정 과정의 경험, 진로결정 후의 경험으로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 17개의 핵심개념으로 분류되었다.

진로결정 과정의 경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의 진로결정 과정의 경험은 진로결정의 영향요인, 진로결정의 걸림돌과 같은 2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진로결정의 영향요인에서 부모의 의견은 들었으나 스스로 진로결정을 한 참여자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되었으며, 한 명의 참여자

만 본인의 의견없이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반대나 강요가 있었음을 진로결정의 걸림돌이라고 보고한 참여자는 반 이상이었고 걸림돌이 없다고 한 참여자도 한 명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부모님의 영향은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스스로 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진로결정의 영향요인

한 명을 제외한 참여자들은 진로결정을 스스로 하였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였다.

제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영향은 많이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는 이게 괜찮을까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참여자 2)

진로 선택은 근데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이거 해봐라 좋은 직업인 것 같다 추천을 해주는 것도 있었고 또 저의 성향을 보고 너는 이런 걸 해야 한다,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건 있긴 했지만 결정은 제가 했어요. 항상. (참여자 4)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인지랑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재수할 때도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이서 되게 저 때문에 많이 싸우시고 그런 모습을 그냥 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두 분의 영향이, 아빠가 근데 입김이 더 세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고 자기가 의견대로 안 되면 화를 내버리시니까. 그래

서 저는 그냥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진로 선택을 했던 그런. (참여자 5)

- 진로결정의 걸림돌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된 것은 부모였고 금전적인 부분도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부모 모두가 참여자의 결정을 지지해준 경우는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되므로 자신의 역량이 걸림돌이라고 하였다.

아빠는 좀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싶은 것도 막으셨고 승무원 하고 싶은 것도 막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것이 제가 진로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사실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데요, 금전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식이든 직업으로써 일을 하든 다 비용적인게 많이 학업에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대학원 학비도 당연히 제 빚으로 있구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로써 금전적인 부분이 금세 해소되지도 않을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구요. (참여자 2)

저의 역량?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건 시험 준비니까 그 부모님이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다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서 그냥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상황
인 것 같아요. (참여자 4)

하시고, 응원해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2)

진로결정 후의 경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의 진로결정 후의 경험은 부모의 반응과 부모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2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부모의 반응은 지지를 보내거나 지원해줌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함을 대부분의 참여자가 보고하였으며 1명은 결정 후 한쪽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에 서운함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김이 전형적인 수준에서 확인되었고, 반대하지 않았지만 편치 않았거나 반대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웠으며 지지해 주어 본인에게 집중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김이 각각 변동적인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 부모의 반응

참여자의 부모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결정에는 긍정적 반응, 반대 경우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행정공무원으로 진로를 결정한 후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메리트 덕에 부모님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참여자 7)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께서 응원해주시지만, 그때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셨던 진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못마땅하게 생각

아동보육과 그걸로 지원을 했는데 입학이 돼서 아빠 나 대학교 갈게요. 라고 했더니 아빠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뭔가 엄청나게 배신감이 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그 대학교 다니는 2년 동안 아빠랑 엄청 쌓였던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하고.. 정말 저도 2년 동안 그냥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게 아빠한테 저도 안 다가가려고 하고 아빠도 저한테 걸을 좀 안 내주시는? (참여자 6)

- 부모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감정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부모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상처받고 섭섭함을 넘어 우울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단 한 명의 참여자만 부모가 모두 참여자의 결정에 따르고 응원을 보냈다.

아빠는 어문과 가서 취직도 잘 안 되는데 뭐 먹고 살려고 하나는 식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 반박하기는 힘들었지만, 진로 정하는데 도움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저런 식으로 말을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들이 정도로 되게 섭섭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여자 3)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진로를 가지고도 의견 불일치가 매우 심해 두분에서 싸우는 일이 허다했고, 그 사이에서 언제나 저

는 힘들고 많이 지쳐 이제 그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의 사대로 결정된 진로는 아니었기에 대학에 입학해서도 한동안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5)

부모님의 반응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니 전공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 이뤄라.' 였습니다. 제 진로는 고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일찍이 정한 거라 별다른 반응이나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로 결정 후 저의 생각은 '나만 잘하면 다 된다.' 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언제든지 지원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참여자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불일치하는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성장한 초기성인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와 그러한 경험이 진로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험들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떠한지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과 진로결정 후에는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심리적 경험, 그 과정 등 연구 대상 내면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을 적용하여 불일치하는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을 대

상으로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단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쳤다. 분석결과,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 불일치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이라는 2개의 영역에 4개의 범주, 11개의 하위범주, 47개의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한 2개의 영역과 그에 따른 주요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의 경험』의 영역은, 불일치하는 부모에 대한 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불일치하는 부모에 대한 경험은 인지적 경험, 정서적 경험, 행동적 경험의 3가지 요소,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통제적이고 간섭함, 방임적이거나 방목함, 지지적이며 수용적임, 헌신적이나 과함의 4가지 요소로 나타났다. 각 범주에 따른 주요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일치하는 부모에 대한 경험의 하위범주 첫 번째, 인지적 경험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불일치하는 부모에 대해 각각 부정적, 긍정적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성장함에 따라서 부정적인 부분은 답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답고 싶거나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태도, 특성, 그리고 가치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원인이 부모가 가지는 내적신념이나 가치로 인한 것이라고 한 임승현(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였는지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한 Becker(1964), Rohner(1991), Schaefer(1959)의 연구와 일치한다.

두 번째, 정서적 경험에서는 절반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의 갈등상황에서 다투는 모습으로

인해 두렵고 위기감을 느꼈으며 혼란스러웠음, 자녀에 대한 태도로 상처받았으며 불안하고 무서웠음, 부모가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 두려웠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힘들었음을 보고하였고, 자녀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거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도움의 부재로 속상하고 답답했음을 보고한 참여자도 여럿 있었다. Coe(1972)는 부모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앓을수록 아동은 그만큼 더 욕구불만을 갖고 갈등, 부적응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 간 양육 행동의 불일치와 갈등이 생기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자책감을 느끼고 위축되며 불안정해지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내면화 및 외현화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Shaw et al., 1994; Shaw et al., 1998; Weiss et al., 1992),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서적인 유대감이 낮은 부모와 특별한 일화로 관계가 가까워짐을 느꼈고, 부모에게서 위로와 안정감을 느꼈음을 보고한 참여자도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들이 부정적인 정서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불일치하는 부모 각각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행동적 경험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쪽 부모와 더 밀착되었다는 것은 (참여자 1)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보고하였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다른 참여자들은 부모 둘 중 한 명이 혹은 둘 다 돌봄 점수가 어느 정도에는 도달했는데 (참여자 1)의 부모는 모두 돌봄이 낮아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데, 부모는 일관된 가치관을 갖고 서로를 지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Emery, 1999; Grych & Fincham, 1993). 이러한 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가 자신과 잘 맞고 자신을 수용해주는 한쪽 부모와 더 밀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의 하위범주 첫 번째, 통제적이고 간섭함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강요하고, 엄하고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이고, 자녀의 행동이나 의견에 반대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화를 내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함과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제적인 부모는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아이들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관점에서 양육한다고 하였고, 승인과 복종을 중요시 한다(Grolnick & Ryan, 1989)고 밝힌 연구의 결과와 같다. 반면에,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평소에는 자녀를 존중해주고 수용적이나 학습에 관련해서는 부모가 간섭하였다고 보고한 참여자도 있었다.

두 번째, 방임적이거나 방목함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쪽 부모가 방임하고 다른 부모에게 양육을 일임했고 방목하면서 가끔 통제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방임하는 부모가 다른 한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모든 것을 맡기거나 양육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가끔씩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자녀에게 강요하며 통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감정을 잘 이해해주며, 선택권을 주는 것과 같은 양육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부모는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통제와 압력을 적게 사용한다(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세 번째, 지지적이며 수용적임에서는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 수용해주며, 부드럽고 온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으로 보아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이 통제적이고 간섭함과 방임적이거나 방목함의 태도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부모의 태도를 지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헌신적이나 과함의 양육태도가 나타났는데, 참여자는 부모의 태도가 매우 헌신적이지만 그 헌신이 과하다고 느꼈음을 보고하였다. 결과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참여자의 부모는 과한 헌신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헌신에 대한 인정이나 대가를 바라는 듯한 언사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영역인 『불일치한 양육을 경험한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은 진로결정 과정의 경험과 진로결정 후의 경험,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진로결정 과정의 경험은 진로결정의 영향요인과 진로결정의 걸림돌의 2가지 요소, 진로결정 후의 경험은 부모의 반응과 부모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2가지 요소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과정의 경험에서 첫 번째, 진로결정의 영향요인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들긴 했으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였다고 보고한 참여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문화가 서로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진로 방향을 정하고 전공 및 대학을 선택할 때 부모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김영혜, 2013). 또한, Osipow(1983)는 가족 중에 특히 부모는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녀의 역할모델이 되거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의 의견을 들긴 했으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결이 다르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부모의 반대가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한 참여자들이 ‘자신이 고집해서’, ‘자신이 강하게 주장해서’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반면에 본인의 의견없이 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강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라며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갈 힘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부모 위주의 진로결정은 진로미결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부모의 관여나 지지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보내주어야 하며,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거리를 유지하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수리, 이재창, 2007)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진로결정의 걸림돌에서는 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부모의 반대나 강요를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과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복기, 이성진, 2012; 이세경, 김영혜, 2011)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진로결정 후의 경험의 첫 번째, 부모의 반응에서는 자녀에게 지지를 보내거나 지원해주는 부모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하는 부모가 전형적인 수준으로 보고되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은 매우 대비되는 것으로서 연구 참여자들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현숙과 조한익(2004)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미결정이 높아지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나 진로를 결정한 후 얼마나 힘들었으며 혼란스러웠는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진로결정 후 한쪽 부모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보고한 참여자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진로를 선택한 대가로 학교생활을 하는 내내 아버지와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 정서적인 교류도 없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 아버지와 자녀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모의 반응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가 부모의 반대로 서운함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마음이 편치 않음을 경험했는데, (참여자 4)는 유일하게 진로결정에 대해 부모 모두가 지지해 주어서 본인에게 집중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오은영(2011)에 따르면 부부도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더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아이의 문제를 도와줄 때에는 맞서지 않고 동지가 되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부간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더라도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모 모두 자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자녀-부모 간 신뢰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서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참여자 4)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역할 확대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져서 주위 사회적 체계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노지형, 송현주, 2012).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 4)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있어서 다른 참여자들보다 수월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

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이 진로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함으로써 부모의 불일치한 양육에 대한 자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근거로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갈등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이승희 등, 2010),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며(Tschann et al., 1999),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책감을 느끼고(Shaw et al., 1998), 자신감을 결여시키는(이정숙, 2016) 등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친다고 밝혔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격형성에 긍정적 도움이 되었고, 자립심과 독립심을 갖게 되었으며, 부정적인 경험을 개인적인 통찰로 승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기존 양적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주로 횡단적 연구로 이루어졌던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결정 및 확신 간의 관계를 부모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진로결정의 영향요인과 결립돌, 진로결정 과정과 결정 후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현숙, 조한익, 2004; Flett et al., 1995; Frost et

al., 1990)처럼 초기성인기인 연구 참여자들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부모의 의견을 들었고, 부모의 반대나 강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부모에게 서운함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으나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이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의 불일치한 양육태도가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상황을 만들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기존 연구들(김지현, 2007; Gati et al.,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두 부모 중 한쪽이라도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고 지지하면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자녀의 생생한 경험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탐색할 수 있었다. 많은 육아서적이거나 부모 양육태도 관련 서적들에서 ‘양육태도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지각한 부와 모 각각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 부와 모의 양육태도의 불일치로 인해 그들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면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함으로써 상반되는 경험을 하였으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하였다면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상담자들은 부모와의 관계나 진로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청소년과 초기성인 내담자들에 대해 탐색하면서 가정환경을 조명할 것이나 그중에서도 부모와의 갈등, 특히 부모 각각의 양육방식 또는 태도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는 불일치하나,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해서 한쪽 부모라도 자녀

의 선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과 부모가 함께 믿어주고 지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부모들에게 올바르게 보다 나은 양육태도를 제시하는데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가 되고, 부모와의 관계나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하는 청소년과 초기성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 정도의 기준이 모호했다. 연구 참여자인 양육태도가 불일치한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를 모집하기 위해 ‘본인이 지각한 양육태도 검사’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가 큰 20명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참여자의 개인 사정과 변심으로 8명만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와 모의 양육태도 점수차가 큰 사람의 다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다음으로 점수차가 큰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부와 모의 양육태도 점수차가 큰 사람의 다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심층적인 면담을 해야 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러내기가 매우 꺼려지고 어려웠을 것임이 그 원인이라고 추측한다.

둘째, 참여자 면담은 대면, 화상(Zoom), 전화통화 중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 면담을 실시하는 기간에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화상(Zoom)과 전화통화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낯선 연구자와 화상이나 전화통화로 면담을 해야 했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충분히 되지 못하여 참여자들이 좋은 정보만을 제공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 본가가 지방인 참여자도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군을 대표할 수는 없다. 또한, 성별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서 균형이 맞지 않았다. 향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공과 직업군을 가졌으며 남녀비율을 비슷하게 갖춘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윤영 (2008).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덕주, 권혁철 (2013). 특성화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부적응적 방어기제 및 만성적 지연행동과 진로미결정수준간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0(3), 587-605.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상담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2002년~2011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김영혜 (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 결정 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영 (1996). 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김은정 (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07).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김향란, 유승래, 손은령 (2017). 진로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73-191.

남수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지형, 송현주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4(1), 1-15.

박경환 (2011). 직장인의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43-264.

박미경, 김은하 (2016).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07-225.

박영숙 (2018).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경험과 회복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성희 (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승진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 서경현 (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 207-226.
- 서경현, 유제민, 최신혜 (2007).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55-272.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 선헤연, 황매향, 김영빈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상담학연구*, 8(2), 549-563.
- 손은령, 이순희 (2011). 국내 진로 집단지도 및 집단 프로그램의 연구동향과 후속연구과제: 2001년 이후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2(2), 129-147.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31(5), 979-992.
- 신복기, 이성진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44, 281-318.
- 연문희, 강진령 (2002). *학교상담*. 서울: 양서원.
- 오은영 (2011).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서울: 웅진씽크빅.
- 유성민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무조건적 자기수용 및 대인관계 친밀감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민 (2014). 성인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아분화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757-779.
- 윤운영 (2017). 청소년기 상실 경험과 학교상담자의 상실상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세경, 김영혜 (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45-266.
- 이소미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 광수란, 장은옥 (2010).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을 매개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3-42.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2016). 부모양육태도 차이가 청소년의 자신감과 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319-337.
- 이지연, 하정희, 전수현 (2007). 사회적 지원 및 성취 상황에서의 부모 태도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2), 691-705.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23-238.
- 이창숙 (2007). 부모양육태도와 애착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혜진 (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현 (2009). 학령기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장희순 (2020).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3), 307-332.
- 정윤성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 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 표현방식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최은희 (2002). 아동학대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9(5), 55-71.
- 최진, 권호장 (2016).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연구동향과 측정도구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5), 316-324.
- 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1(4), 1375-1392.
- 한유리 (2020). 제2판 질적 연구 입문. 서울: 박영스토리.
- 허정철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9), 504-513.
-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75-699.
- Aquilino, W. S. (1997). From adolescent to young adult: A prospectiv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70-686.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69-208.
- Coe, W. C. (1972). *Challenges of personal adjustment*. San Francisco: Rinehart Press.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 Bull*, 92, 310-330.
- Emery, R. E. (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Vol. 14). Sage Publications.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51(1), 50-60.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amsa, A. (1987).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3), 291-294.
- Gati, I., Osipow, S. H., Krausz, M., & Saka, N. (1996).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 Counselor versus career counselor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99-113.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2), 143-154.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1), 215-230.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2년 출판).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Williams, E. W.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y*, 25(4), 517-572.
- Hudson, J. L., & Rapee, R. M.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nxiety disorders: An observation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12), 1411-1427.
- Katz, L. G. (1988). Child-rearing disagreements. *Parents*, 63, 170.
- Mills, R. S. L., & Rubin, K. H. (1998). Are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ournal of Behavior Sciences*, 30, 132-136.
- Osipow, S. H. (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ohner, R. P. (1991). *Handbooks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 Shaw, D. S., Vondra, J. L., Hommerding, K. d., Keenan, K., & Dunn, M. (1994).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7, 545-553.
- Shaw, D. S., Winslow, E. B., Owens, E. B., &

- Hood, N. (1998).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ronic family adversity :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545-553.
- Strauser, D. R., Lustig, D. C., & Ciftçi, A. (2008). Psychological well-being: its relation to work person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though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2*(1), 21-35.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Tschann, J. M., Flores, E., Pasch, L. A., & Marin, B. V. (1999). Assessing interparental conflict: Reports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269-283.
- Warr, P. (2007). *Work, happiness, and unhappines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iss, B.,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2). Some consequences of early harsh discipline : Child aggression and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Child Development, 63*, 1321-1335.

1차 원고접수 : 2022. 04. 18.

수정원고접수 : 2022. 06. 30.

최종게재결정 : 2022. 08. 30.

A Qualitative Study of Experiencing Different Parenting Styles on their Early Adult Children's Career Decision

Se-Ok Oh

Birch Forest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Play therapist

Jung-Hee Ha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early adulthood children having parents with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their impact on career decisions. For this reason, we distributed a parenting attitude test questionnaire, and collected data through one-on-one in depth interviews with eight adult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who experienced a large difference in the parenting attitude of their mother and father and have experience in deciding their career path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method.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there are 4 categories, 11 subcategories, and 47 core concepts across 2 areas, such as the experience of a child who grew up from a parent whose care attitude was inconsistent due to research problems, and the experience of deciding the course of a child who experienced inconsistent 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hildren who had received inconsistent parenting had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experiences, which were not only negative but also positive, and concerning the parenting attitude, they had a contradictory perception for each parent. It was also found that, despite parents' inconsistent rearing attitudes, if the parents had the same opinion on the child's career problem, or if one of the parents supported the child, the child could choose and decide on the desired career. When such results wer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suggested.

Key words: parental upbringing attitudes, discrepancies in upbringing attitudes, career decisions,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